

2019학년도
제 28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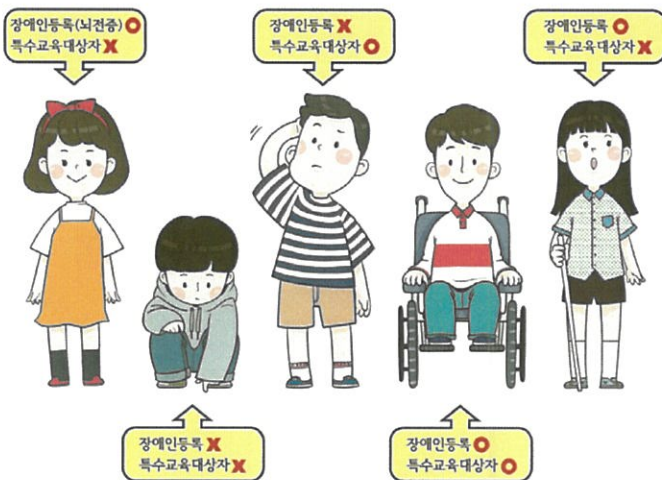
4월20일 장애인의 날 관련
장애인식개선

교무실 542-6201
행정실 544-0599
<http://www.hg.es.kr>

꽃내음 가득한 4월입니다. 다가오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로, 올해 39회를 맞이합니다. 황강초등학교도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며, 가정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에, 자녀들이 나와 다른 이들을 생각해 보고, 장애학생들과 함께 많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쳐 선정된 학생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에서 권유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과 인권

장애 유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언어, 문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평화롭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장애 유무를 떠나 공감과 이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육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요

장애인의 날
참.끼.밋을 가꾸는 행복한 배움공동체

장애인의 날
참.끼.밋을 가꾸는 행복한 배움공동체



기억하세요!

‘장애자’, ‘장애우’ ▶ 장애인
‘일반인’, ‘정상인’ ▶ 비장애인

글 : 김차명(경기도 시흥정왕초등학교 교사) 그림 : 강세라(충북 상봉초등학교 교사)

장애인의 날
참.끼.밋을 가꾸는 행복한 배움공동체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남자!”, “노인!” 하고 부르는 듯이 장애인을 가리키며 “장애인!” 하고 부르거나 손가락질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장애친구를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구의 이름을 “○○야!” 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황강초등학교 친구들이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